

북한 국문학 연구성과 집대성한 남한 최초 출판물

박이정출판사 <조선어학전서(전65책)> 1차분 펴내

국문학 전문 서적을 꾸준히 출간해온 박이정출판사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기획한 <조선어학전서(전65책)>를 펴내기로 하고 지난 10월 27일 1차분 5권을 펴냈다. 《조선어 표기편람》《조선어 어원편람(상·하)》《조선지명편람—평양시》가 그것.

그동안 연변 재중동포를 중심으로 한 국문학 연구성과를 학계에 보급해온 박이정출판사는 지난 2000년, 석박사 논문 출판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 전병선 박사로부터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조선어학전서>를 기획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사정상 출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출판을 결심했다. 출판합의서는 북한에서 출판·판매를 위임받은 전병선 소장과 교환했다. 그 뒤 지난 2월 연변에서 열린 '국어학술정보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의 문영호 소장 일행은 원고와 가제본한 책을 회의 장소에 가져왔고, 남쪽 교수로 참가했던 최기호 교수 편에 원고를 전달했고 1차 계약금 3백만원을 최교수가 대납했다. 그 뒤 지난 5월 14일 박이정출판사는 전병선 소장에게 계약서 초안을 팩스로 보내 계약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료 및 판권료 6만달러를 지급하고 대한민국에서 이 저작물에 대해 도서, CD

롬, 인터넷, 전자책 등 일체의 권한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북한 저작물의 경험이 없는 박이정출판사는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출판하기로 계약한 것. 이에 박이정출판사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승인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이정출판사는 협회 차원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출판 후 절차를 밟기로 하고 출판에 들어갔다.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기획
박이정출판사/A5신/400면 내외/각 20,000원 내외

현재 1차로 원고상태로 된 《향가연구》(류 열) 등 10권 분량의 원고가 입수된 상태로, 《조선어 표기편람》 등 5권이 10월 27일 각 5백부씩 발행됐지만 아직 배포는 하지 않

고 있다. 《조선어 어휘정리론》《조선어휘통계학》《조선어휘론》은 제본 중이며 《향가연구》는 교정 중이다. 박이정출판사는 현재 경위서를 통일부, 국정원, 문광부 등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서적을 반입한 것과 북한사람과 접촉한 것이 위법이지만, 출판사쪽에서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박이정출판사 박찬익 대표는 이 책의 출간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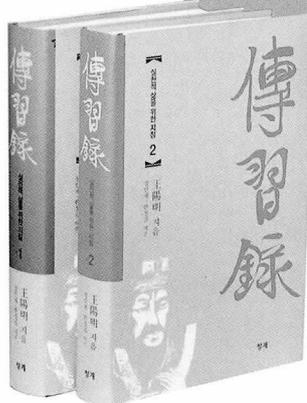
“북한의 학술단체가 기획하고 남한의 출판사가 출간한 최초의 책이다. 국어학 전문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남한 국문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김장근 기자

양명학을 완성한 왕양명의 철학사상을 가장 뚜렷하게 전하는 《전습록(傳習錄)》이 완역돼 나왔다. 《전습록》은 왕양명의 제자들이 선생의 학술에 대한 말씀과 학문을 논한 편지글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주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다. 양명학의 근본사상으로 인식과 실천이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 심즉리(心即理), 만물일체(萬物一體) 사상 등이 드러난 핵심적 저술이다. 이번에 완역된 책은 《전습록》상·중·하권을 중심으로 왕양명의 다른 저술인 《전습록습유(傳習錄拾遺)》《대학교본서(大學古本序)》《대학문(大學問)》을 완역하고, 《전습록상주집평(傳習錄詳註集評)》에 모아놓은 《전습록》각 조목에 대한 고급 학자들의 평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양명학의 학술 내용뿐만 아니라 왕양명의 삶도 투영돼 있어 양명 사상의 전체 규모와 핵심 내용을 두루 살필 수 있다. 왕양명은 객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이론적 방법으로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해석한 주자의 입장에 반대했다. 그는 “나의 앎을 극진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물(物)에 다가서서

21세기에 다시 돌아보는 실천적 지식인 왕양명

《傳習錄—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전2권)》



청계/A5신/512면 내외/각 25,000원

(即) 그 이치를 끝까지 캐들어 가는 데 있다”고 해 ‘격(格)을 ‘이른다’(至)로, ‘물’(物)을 ‘사물의 이치’로 해석했다. 또한 이 책은 공동체 질서가 해체되던 혼란한 시대를 헤쳐온 한 지식인의 인간적 고뇌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공동 번역한 정인재 교수(서강대 철학과)와 한정길씨(연세대 철학과 강사)는 7년여의 연구과정을 거쳐 번역을 마쳤다. 무엇보다 양명학 전문학자인 율

긴이들의 작업은 기존 논문 중심의 단편적 연구 성향에서 벗어나 양명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 연구번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옥순 기자